

영국의 호스피스 기관 방문기

홍영선
(성모병원 종양 내과 전문의)

영국은 호스피스 선진국으로 1960대 초에 Dame Cicely Saunders가 근대 호스피스를 시작한 이래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이루어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 이상의 호스피스 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 palliative medicine과 (완화의학과)가 의학의 한 분야로 독립되어 교육과 연구, 진료를 담당하는 한편 국제적인 모임을 주도하고, 호스피스 후발 국가의 요원을 초청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직접 그 국가를 방문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의 호스피스 교육 연구소에서도 중앙의료원의 지원을 받아 1996년 말, 현재 영국 hospice 학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교과서를 쓰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 온 Dr. Derek Doyle을 초청한 바 있고, 당시 의료원장님의 주선으로 금번 영국 호스피스기관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영국의 호스피스는 사회보장제도와 오랜 전통을 사랑하는 가정간호를 바탕으로 완벽한 봉사체제를 구축하여 말기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돈이 없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가히 복지국가라고 지칭함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한국에서 한국인에 의한 호스피스를 제일 먼저 시행한 기관으로 강남성모병원에 한국 최초의 호스피스 병동이 세워졌고 간호대학에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hospice & palliative care가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한국의 hospice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는 hospice의 접근방법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 자칫 소홀한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실 가장 고통받고 있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을 유지하면서 평화와 행복 속에서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가톨릭정신 즉 중앙의료원 이념의 구현과 일맥상통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다.

필자는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의 주경수 지도신부님과 함께 영국의 Newcastle에 있는 St. Oswald's Hospice 와 Marie Curie Center 를 각각 1주씩 방문 하였다.

1. St. Oswald's Hospice

영국 Newcastle의 hospice/palliative care의 핵심기관 중의 하나로 1986년에 현금과 기금증가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 200만 파운드를 사용하여 설립되었다. 설립당시부터 Dr. Claud Regnard가 medical director로 일하여 왔으며, 106명의 직원과 250명의 자원봉사자, 25명상의 입원실, day care, 교육센터, 사별간호 프로그램 및 임프부종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 운영예산은 300만 파운드(약 45억원)로 전액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와 fund raising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다.

1) 의사

6명의 의사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진료, day care, 임프부종 클리닉 진료를 비롯하여 Newcastle내의 종합병원인 General hospital, Freeman hospital 및 주변도시의 Teesside hospital로 부터의 consultation 요구에 의한 진료, 지역의 일차간호팀과의 연결, 여러수준의 완화의학 강의, 교육과정 및 자료개발 등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Dr. Claud Regnard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저술에 많은 공헌을 한바 있으며,

Teesside University의 완화의학 교수로, 그의 저서중의 하나인 완화의학 단행본은 한국의 호스피스 종사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2) 간호사

간호사들이 ward assistant 및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입원환자 간호 및 day care 환자의 평가, 일차간호팀과의 연락, 자원봉사자 관리등에 종사하고 있다.

3) Fundraising

staff와 자원봉사자들이 기금마련을 위하여 일하며, 기부금 수집 및 환자들이 남긴 유산정리, 경품, 복권, 가두모금, 가구방문 등을 통하여 기금을 모으는 한편 Newcastle 내의 기념품 가게와 hospice 내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4) 자원봉사자 Coordinator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 후 봉사자의 희망을 감안하여 배치하며, 각 부서 배치 후 필요에 따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oordinator가 봉사자 활동을 감독하며 Day Care의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운전자원봉사자의 선정, 배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 자원 봉사자를 보험에 가입하여 봉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며, St. Oswald's Hospice에서는 주 1회 이상 봉사 가능한 봉사자만 받아들이고 있다.

5) Day Care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운영하며 1일 15명~20명 사이가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차량으로 수송해 오고 오후에 다시 집으로 보내주며 점심을 제공한다.



▲ St. Oswald's Hospice Center 입구

day care에 머무는 동안 증상관찰, 치료(수혈, 상처소독, 주사), 작업치료(진흙모형), 이발, 미용, 목욕 등을 시행하며, 간호사들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임프종 클리닉, 외래진료 등도 이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환자수송을 위하여 wheel-chair 수송이 가능한 mini bus가 마련되어 있다.

6) 사별간호

사회사업가가 입퇴원관리와 사별간호를 담당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기본교육을 마친 후 사별간호에 배치되면, 다시 추가교육을 시행한다. 사별가족의 group 모임을 운영하며 어려워하는 가족의 상담도 시행한다. 자원봉사자가 사별간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7) 식당

요리사들과 보조원들이 같이 일하며, 입원환자, 직원, day care환자의 식사를 담당하고, 환자의 영양 및 식사 종류에 대한 연구도 같이 시행하고 있다.

8) 연구 및 교육

호스피스에 관여하는 여러 직종의 교육과정, 자료의 개발은 물론 직접교육도 시행하여 지역의 교육센터로 기능하며, 전체 영국의 project 인 video-communication system 개발을 주도하여 화상회의를 통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9) 원목

전임 원목자는 현재 없으며 환자의 요구에 따라 주변의 여러 종파에 의뢰하여 사목자를 초빙하고 있다.

10) 행정

많은 수의 행정직원들이 비서, 접수, 건강 및 안전, 인력관리, 기금조성, 유산관리, 자산재단과의 관계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2. Marie Curie Center

2차대전 후 전쟁에 참여한 여성들을 돕는

기관으로 시작하였으며 Marie Curie의 이름을 따서 1948년에 기념 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이끌며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전국에 11지역에 MCC가 있으며, 간호사주도의 활동을 해 오다가 최근 의사가 영입되어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입원, day care, 외래, 가정간호, 사별간호, 교육 및 연구, 지역병원(Royal Victoria Infirmary)에 대한 palliative medicine consultation service 등을 시행하고 있다. 1995년 현재의 위치로 신축 이전 하였으며 450만 파운드(67억 5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건축되었다. 24병상을 가지고 있다.

1) 의사

medical director인 Dr. Mary Comiesky를 포함한 consultant들과 registrar들 그리고 house officer가 함께 일하고 있으며, Newcastle 주변의 Corbridge, Hexam까지 cover하고 있다.

2) 간호사

입원환자 간호와 day care에서 간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day care

간호사 외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다.

4) 식당

Chef가 음식을 먹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하여 먹기 쉽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의 조리법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책도 발간중이다.

5) 원목

3명의 원목이 주변 각 종파에서 part-time으로 나와 일하고 있다.

6) 교육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직종에 대한 Marie Curie Center 자체의 교육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방문후 소감

영국의 호스피스 는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과 기존의 가정간호 체계를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며, 환자, 의료인, 봉사자 모두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상적인 환경에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상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기금 증가 노력 (fund raising)이 없이는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 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호스피스의 본산지이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palliative medicine이 의학의 한 분과로 독립되어 있는 영국에서도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직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palliative medicine 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활발한 hospice / palliative care 연구와 그 결과의 발표 및 확산이 의료인의 관심을 끌거나 호스피스 발전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